

濟州語의 住居 生活 語彙*

강 영 봉**

건축 문화의 해를 보내며, 濟州語에서 쓰이는 주거 생활 어휘 몇을 어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 그 어휘가 지닌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거왕

초가집 처마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새끼를 매기 위하여 대는 나무를 말한다. 달리 '거왕대'라고도 하는데¹⁾, 중앙어 '평고대(平高臺)'에 해당한다.

이 어휘는 {거-}+{왕}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거-}는 {걸-}의 어간에서 말음 'ㄹ'이 탈락한 형태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거왕'의 기능이 처마 밑에 걸려 있으며 처마를 떠받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다음의 {왕}은 '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췌막'을 '췌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의 {왕}과 의미가 같다).

* 이 글은 지난 1999년 12월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사단법인 제주학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일부분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제주어사전』에는 '벵두암'·'맹두암'이라고도 하는데, 각각 그 지역에 차이가 있다. 곧 '벵두암'은 水山, '맹두암'은 西烘 加時에서 조사되었다. '거왕(대)'와는 異形이 쓰이고 있다.

(2) 굴목

이 어휘는 {굴(穴)+목(목)}으로 분석된다. {굴}은 ‘穴’의 뜻이다. 그러나 까끄라기와 같은 연료를 넣고 ‘구그네²⁾로 집어넣기도 하고, 재(‘불치’라고 한다)를 끄집어 내기도 한다.

‘굴목’을 지역에 따라 ‘굴목’이라고도 하니 “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이란 뜻을 지닌 ‘목’의 다른 형태다. 곧 ‘굴목’은 사전의 설명 대로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부분”에 맞는 적합한 의미다. 중앙어에 해당하는 어휘는 없다.

이 ‘굴목’이란 어휘는 함경도와 평안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굴뚝’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3) 눌굽

이 어휘는 {눌}+{굽}으로 분석 가능하다. {눌}은 제주어 “깊이나 풀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둥그런 더미를 지어올리다”라는 뜻을 지닌 ‘눌다³⁾의 어간에 해당한다. 이는 중세어 ‘누르-, 누로-(壓)’에서 온 말이다. ‘보리짚’으로 힘을 주어 누르며 ‘눌’을 만들 때를 연상해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눌’은 無接 派生語(신-신다, 웨-웨다, 띠-띠다 등)가 되는 셈이다.

{굽}은 ‘바닥’의 의미로 쓰인 어휘다.

(4) 막살이

중앙어 ‘오막살이’에 해당하는 이 어휘는 {막(幕)+살이}로 분석된다. 물론 ‘막살’은 {막}+{살-}로 이루어진 형태다. 곧 “막에 살다”의 뜻이다. 이 어휘를 달리 ‘마가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막+아지} 형태로 구성된

2) ‘구그네’나 ‘당그네’ 모두 중앙어 ‘고무래’로 대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드러나는데, ‘구그네’는 아궁이의 재를 끄집어 낼 때 주로 사용되고(그래서 달리 ‘불그네’라 하기도 한다), ‘당그네’는 곡식을 굽어모을 때 사용된다.

3) 중앙어는 ‘가리다’이다.

어휘다. 물론 {-아지}는 縮小詞(개+아지=강아지, 말+아지=말아지 등)다.

다른 지역의 어휘인 '초마가리'(평남)·'마가리'(평북)·'초개막세리'(평북)와 비교해 볼만하다.

(5) 밧거리

이 어휘는 {밧(外)+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거리}는 중앙어 '채'로, "집 채의 수를 세는 단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밧거리'라면 곧 '바깥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 어휘에는 이밖에도 {모커리·안거리(안커리)}가 있는데, 각각 '결채'와 '안채'라는 중앙어에 맞먹는 어휘다. '밧거리'와 마찬가지로 '모커리'는 {모ㅎ+거리}로, '안거리'는 {안+거리} 또는 '안커리'는 {안ㅎ+거리}로 분석된다. '모ㅎ[方]'와 '안ㅎ[內]'는 이른바 'ㅎ중성체언'이다.

{거리}는 수효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다. 『단위어사전』에 따르면, 수효로는 ①말다래[月乃] ②서까래[椽木]·서살[西尙]·재목 ③길이를 몇 갈래로 나눌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②의 뜻이 확대되어 '집'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알녁거리, 동녁거리 등).

(6) 무똥

'처마 밑의 문 앞'을 뜻한다. 이 어휘는 {문}+{똥}으로 분석되는데, 후자인 {똥}을 송상조(1991: 71)에서는 '문똥'을 "문의 바깥 근처"라 하여 '근처(近)'의 의미를 지닌 접미사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똥'이 老衡·造水·仁城에서는 '문두'라 하기도 하는 데 있다. 이 '문두'인 경우 그 어휘가 지닌 의미로 볼 때 '두'는 한자어 '頭'일 개연성이 짙기 때문이다. 잠정적으로 '문똥'은 한자어 '門頭'의 와전된 발화라 해둔다.

(7) 벅부름

중앙어 '바람벽'에 해당한다. 이 어휘를 {벅+부름}으로 분석할 때 중

앙어와는 그 형태가 서로 상이하다.

(8) 봉덕

중앙어 '봉당'에 맞먹는 어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보통 '봉당'이란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어에서 '봉당'이란 부엌이나 마루 가운데 불을 피우기 위하여 만든 화로의 한 가지로, 달리 '부실'·'봉담'이라 하기도 한다. 중앙어와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봉덕'은 {봉+덕}의 구성으로 보이는데, {봉}은 한자 어휘 '封'(흙덩이쌓을 봉·북돋을 봉)에 해당하며, {덕}은 '언덕·둔덕'의 '덕'으로, '높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다.

(9) 불치통

'재거름을 보관하는 공간'을 말한다. 달리 '불치막'이라고도 한다. 이 어휘는 {불치+통}으로 분석된다. 물론 '불치'는 {불[火]}+{-치}로 성분 분석이 된다('불치'는 '재'를 말한다). {-치}는 사물을 나타내는 접미사다(줍치-주머니).

(10) 상방

달리 '삼방' 또는 '한간'이라고도 말해지는데, 중앙어 '대청'에 해당한다. '大廳'이 지닌 뜻 그대로 집안에서 가장 크고 넓은 공간이다. 보통 '상방'에는 집주인이 차지하는 '생깃지둥'(상기둥)이 있기도 하다.

이 '상방'은 지역에 따라 '사랑'(함경남도)·'안방'(강원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1) 쉼막

4) 보통은 '봉홀 봉'이라고 한다.

중양어 '외양간'에 해당한다. 이 어휘는 {쉐+막(幕)}으로 분석되는데, {쉐}는 소[牛]를 말한다. 제주어에서 /니/는 단모음 [니]로 발음되는 일은 없고 항상 복모음 [계]으로 발음된다. {막}은 한자어다.

이 '쉐막'을 달리 '쉐왕'·'쉐막사리'라고도 하는데, 각각 {쉐+왕} {쉐+막사리}로 분석된다. {왕}의 의미는 '거왕'에서 확인되듯 '집(家)'의 뜻을 지닌다.

(12) 올레

『濟州語辭典』에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거 문화에서 볼 때 제주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어휘는 중세어 '오래'에서 온 말이다.

- 오래 문(門)-『석봉 천자문』
- 문 오래며 과실 남글(門巷果木)-『소학언해6』

위 첫 예문에서는 '문(門)'의 뜻이 드러나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 제주어에서와 같은 '골목'의 의미가 엿보인다. '올레'라 된 것은 /H/와 /계/가 변별력이 없어진 결과이다.

(13) 우영

이 '우영'은 달리 '우연·위연'이라고도 하는데, 중양어 '터알'에 해당한다. 이 '우영'은 중세어 '위안'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 園: 위안 원-『훈몽자회』
- 넷 위안헛 너는 슬프도다(慘澹故園烟)-『두시언해3:64』
- 위안해 토란과 바돌 거두워드릴시 오오로 가난티 아니하도다
(園收栗不全貧)-『두시언해7:21』

- 위안 소벳 꽃가지를 더르며 기로물 느던히 너풀디니
(園裏花枝任短長)-『남명상22』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동산·뜨락·전원’의 의미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 ‘위안’은 격변화할 때는 마치 ‘중종성체언’처럼 ‘위안히·위안호로·위안홀’ 등으로 변화한다.

- 李生의 위안히 거츨 듯 하니(李生園欲荒)-『두시언해(초)22:2』
- 어버실 아바도디 오직 저고맛 위안호로 호눏다(養親唯小園)
-『두시언해(초)21:23』
- 일흠난 위안홀 얻도다(得名園)-『두시언해(초)8:11』

(14) 우жат

‘우жат’은 {우+жат}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우}는 중세어 ‘울(울하)’이 분명하다.

- 울 謂籬-『훈민정음』
- 藩 울 번-『훈몽자회』
- 놀나 매는 울 그새 툇기롤 티디 아니호노니라-『남명집』

현대어에 오면 이 ‘울’이 ‘울타리’에서처럼 ‘울’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 ‘이’모음이 덧붙여져서 ‘우리’라는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돼지우리, 우리 안에 갇힌 병아리 등).

{жат}은 ‘城’을 뜻하는 말이다. 지금도 漢拏山으로 올라가면서 ‘하жат→중жат→상жат’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의 ‘жат’이 바로 이 어휘로, 이 또한 中世語 ‘жат[城]’이다.

- 城 жат 성-『훈몽자회』

• 외로워 자새 몫 氣運이 어득흐도다-『두시언해』

그래서 ‘밭жат·жат뵤·жат안ㅎ’ 등 합성어가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할 일은 앞에서 본 ‘우영’과 ‘우жат’의 의미 관계다. 언어 직관을 감안할 볼 때 ‘우영’은 채소 따위를 갈아 말로 이용 가능한 곳이고(중국어 ‘터알’에 해당한다), 반면 ‘우жат’은 집의 자리 곧 ‘우영’을 포함한 집터를 의미한다. “그 집은 우жат이 널러”라 하면 ‘집터가 넓다’의 뜻으로, “우영밭디 강 퍼대기라도 툃다오라”라는 ‘터알’에 가서 배추라도 따서 오라⁵⁾는 의미가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퍼대기’란 ‘배추속대’가 없는 ‘배추’를 말한다.

(15) 정지

‘부억’의 뜻이다. 보통 ‘정지’하면 ①정죽간의 준말, ②부억, ③부뚜막 등의 의미로 쓰인다. ‘정지’ 가운데는 그 형태에 따라 ‘똥정지’가 있다. 집채와는 따로 떨어져 만들어진 부억을 말한다. 이는 <청산별곡>에 나오는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라는 구절의 ‘예정지’와 같다. 곧 ‘예정지’는 {예+정지}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정지}에서 ‘정지’는 ‘부억’을 말하는 것이니, 문제는 {예}에 있다. 이 {예}는 바로 “사방을 뺨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지닌 ‘에우다’(그 준말은 ‘에다’이다)의 語幹이다. 한자 부수 중 ‘匚’(에울 위)을 달리 ‘엔담’이라 하는 것도 이에서 유래한다. 그러니 ‘예정지=똥정지’라는 등식은 아주 자연스레 성립된다.

(16) 통시

‘dotong·dotongsi’라고도 말해지는데, ①뒗간(경남·전라·제주) ②돼지 우리 변소의 뜻으로 쓰인다. 이에 해당하는 중세 어휘로 ‘통시’가 있음

5) 여기서 말하는 ‘퍼대기’란 ‘배추속대’가 없는 ‘배추’로, 보통은 이른봄 눈 맞고 난 다음에 따서 먹는다.

을 본다.

- 시혹 부테며 직상 량반 반상에 저근덜 올와 잇다가 도로 통시에
똥이로라 호고-『칠대만법13』

제주어의 ‘통시’는 중세어 ‘통시’가 단모음화된 어휘이다.

石宙明(1971: 28)에서는 변수의 명칭이 5종 곧 ‘통쉬’(본래부터 보통 명칭이었을 것)·‘통시’(‘통쉬’가 변한 것)·‘돋통’(본래는 豚舎를 의미하였을 것)·‘도통시’(‘돋통’과 ‘통시’가 합해서 된 것)·‘칙간’(廁間的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호랑 (가지)⁶⁾

이 어휘는 ‘호랑’이라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없고 항상 그 뒤에 ‘가지’가 연결되어 사용된다. ‘처마’의 뜻이다. “비 맞지 말앙 이 호랑 가지 안터레 들어사라(비 맞지 말고 이 처마 안으로 들어서라)”의 ‘호랑 가지’의 ‘호랑’이다. 이 어휘는 어느 자료집에도 나오지 않는다. ‘처마’를 의미하지만 집 울타리와 이웃하고 있는 처마를 말한다. 처마와 울타리 간격이 좁아 비좁은 통로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옛 초가집 구조로 볼 때 보통 장독대는 안채 뒷 편에 있으니 된장이나 간장을 뜨러 갈 때는 부엌문을 통과하여 남의 집과 경계가 되는 울타리 사이를 지나야만 된다. 그 통로가 바로 ‘호랑 가지’라 말한다. 곧 “비 맞지 말앙 이 호랑 가지 안터레 들어사라”의 ‘호랑 가지’의 ‘호랑’이다. 중앙어 ‘複道’에 해당한다.

이 ‘호랑’은 몽골어 ‘qorɣu’(그릇·용기)의 차용어일 가능성이 짙다. 이 ‘호랑 가지’란 단어를 가지고 몽골 국립대 T. Shagdarsüring 교수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 단어를 듣고 얼른 들어준 예문이 “Би модон дор борооноос хоргодов.(나는 나무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이다. 여

6) 필자(2000)의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기서 주목되는 어휘는 'xoprod-'(qorgud- 마음이 끌려가다. 도망쳐 들어간다)라는 동사다. 이때 'qorgud-'는 'qorgu'에 동사화 접미사 {-d(-n ox)}(도구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냄)가 연결되어 형성된 어휘다. 예를 들면 'zilux-a'(고삐) → 'ziluxda-'(운전하다), 'suxu'(겨드랑이) → 'suxuda-'(끼다)와 같다. 이렇게 본다면 『元朝秘史』의 'horha(n)'형이 이 방언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할하 방언 사전(1988: 199)』에는 'qorgu'의 방언형으로 'qorog · qorgan'이 보이는데, 우리의 관심은 'qorgan'에 있다. /r/과 /a/ 사이에 있는 /g/는 아주 약한 [ɣ]로, 이 [ɣ]이 탈락하고 나면(qoran)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호랑 가지'의 '호랑'이 된다.

그 의미는 『오르도스사전』의 “양과 염소를 가둬놓는 울타리나 울안의 땅: xopGo(enclos en...où, la nuit, on enferme les moutons et les chèvres pendant l'hiver)”이란 설명을 눈 여겨 볼만하다. 『五體清文鑑』에 'qorgu'(豎櫃, 器皿部 器皿類)가 나타난다. 몽골 문어: qorxu(cabinet, cupboard; cage; shelter, refuge, cover) 『元朝秘史』: horha(n)(寨子 verhau, palisaden) 칼묵 방언: xopxo(schutz, schirm, schanze)의 자료들도 좋은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 강영봉(2000);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탐라문화』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 문화재 관리국(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형설출판사.
- 박성훈(1998); 『단위어사전』, 민중서림.
- 박용수(1989); 『우리말 갈래사전』, 한길사.
- 박용후(1960·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연구실; 『방언자료집』.

- 석주명(1946);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석주명(1971);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송상조(1991); 『제주도방언의 접미 파생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창돈(197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제주도(1995); 『제주어 사전』, 제주도.
제주도; 『제주의 민속』4,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제주도건축사회(1992); 『제주 건축』제2집, 정문사.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현평효(1962·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